

항일의병운동과 의병장 고사훈



고사훈은 제주의 항일의병운동을 앞장서서 선도한 의병장이다. 나라를 잃을 위기에 분연히 떨치고 나선 그의 애국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된다.



승천로 | 제주시 이도2동 1062 ~ 제주시 이도2동 1251-1(약 1km)

박성내동길 | 제주시 아라2동 1240 ~ 제주시 아라2동 1251-1(약 0.6km)

신설로 | 제주시 이도2동 511-1 ~ 제주시 아라2동 1296(약 0.6km)

이도공원길 | 제주시 이도2동 439-13 ~ 제주시 이도2동 442(약 0.5km)

가령로 | 제주시 이도2동 314-4 ~ 제주시 이도2동 382-14(약 0.8km)

동고산로 | 제주시 이도2동 1180-13 ~ 제주시 이도2동 1134-27(약 0.5km)

청굴로 | 제주시 이도2동 378 ~ 제주시 이도2동 387(약 0.4km)

남광로 | 제주시 이도2동 1080-8 ~ 제주시 일도2동 113-6(약 2.3km)

오복1길 | 제주시 이도2동 1058-24 ~ 제주시 이도2동 1036-11(약 0.3km)

정든로 | 제주시 이도2동 397 ~ 제주시 이도2동 417-3(약 0.7km)

태성로 | 제주시 일도2동 74 ~ 제주시 일도2동 112(약 0.4km)

승천로 | 의병장 고사훈

승천로는 제주제일중학교 앞을 지나며 연삼로와 연북로를 잇는 길이다. 이 길은 조선시대 의병운동에 앞장섰던 의병장 고사훈을 기리기 위해 그의 또 다른 이름인 ‘승천’을 반영해서 승천로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1907년 고종황제는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이유로 일본에 의해 강제로 퇴위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키지 않는다. 그러자 이에 반발해서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다. 제주에서도 고사훈과 김만석, 김석윤 등 10여 명의 의인들이 뜻을 모아 일본에 항거하는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고사훈과 이중심이 의병장이 되어 왜적들이 나라의 주권을 강탈하려 하니 죽음으로써 왜적을 격퇴하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내용의 격문을 제주 전역에 돌렸다. 1909년 3월 3일에 관덕정에 모여 궐기하기로 결정하고 만 명의 의병을 목표로 각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집해 나갔다. 고사훈은 김만석과 함께 대정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들을 모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사전에 발각되어 거사일을 이틀 앞둔 3월 1일 고사훈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만다. 그리고 의병운동이 확장될 것을 우려한 일본 경찰은 체포한 지 불과 3일만에 고사훈을 총살시킨다. 고사훈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총탄에 세상을 떴지만 나라를 위해 스스로 앞장섰던 그의 호국정신은 제주의 항일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훗날 고사훈은 애국지사로 인정받아 훈장이 추서되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던 의병들의 도전에는 숭고함이 녹아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들의 열정은 오늘날 우리의 애국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승천로 표지석

박성내동길 / 신설로 / 이도공원길 | 박성내와 이도근린공원

박성내동길은 승천로와 산지천 사이에 나 있는 길이다. 이 주변을 흐르던 하천을 박성내라고 불렀다는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한라산 북쪽에서 시작되는 산지천은 여러 마을을 구불구불 지나 바다에 이른다. 그래서 아홉 번 굽이친다고 해서 구곡수라고 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산지천을 다르게 불렀는데 아라동에서는 아라내, 이도동에서는 박성내, 일도동에서는 산짓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제주의 하천이 대부분 그렇듯 이 하천도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을 특별하게 여겨 사람들은 이 하천



박성내

에 1년에 세 번 물이 흐르면 흉년이 들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승천로의 동쪽으로는 **신설로**가 나란히 이어진다. 이 길은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인 신설동의 이름을 반영했다. 과거 이곳은 대부분이 밭이었거나 나무가 우거져 있는 숲이었다. 그러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변화를 맞았다. 곳곳에 들어선 높은 건물들과 반듯하게 나 있는 길들이 예전과는 다

른 풍경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평야나 나무들이 있는 곳들을 밀어 버리고 건물들만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높은 콘크리트 건물만 들어서 있는 환경은 사람들의 감정을 메마르게 한다. 그래서 요즘은 도시개발을 할 때 사람들의 정서생활을 위해 곳곳에 공원을 조성한다. **신설로** 북쪽으로 이어진 **이도공원길**은 그런 이유로 조성된 이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사람들은 산책을 할 때나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이 공원을 이용한다. 요즘은 도시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이런 공원들은 삭막한 도심 속에서 조금이나마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가령로/동고산로 | 가령마을

동광로와 연삼로를 연결하는 **가령로**는 가령마을이라 불렀던 지명에서 딴 이름이다. 이 마을은 예전에 현감을 지냈던 가령 양씨 양장의가 살았었기 때문에 가령이라 불렀다고 한다. **가령로**는 서쪽으로 **동고산로**와 이어진다. 이 길은 고산동산이라고 불리는 지명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제주시청에서 남쪽으로는 언덕길이 동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곳을 예전에 고산동산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고산동산의 동쪽으로 연결된 길이라는 의미로 **동고산로**라 했다.

청굴로 | 청굴나무

가령로와 연삼로를 잇는 **청굴로**는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청굴나무가 있는 지역이라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다. 제주는 옛날부터 굴로 유명했다. 그래서 과원을 곳곳에 마련해 진상품으로 올렸다. 제주에서는 지척에서 볼 수 있었던 굴이었지만 육지에서

는 왕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과일이었다. 제주에 왔던 유배인은 한양에서 떠나 외딴 섬으로 떠나야 하는 처지에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한양에서 보기 힘든 귤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것에서 위안을 찾기도 했다. 유배인 충암 김정 역시 제주의 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가 남긴 <제주풍토록>에는 9종류의 귤과 유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청귤에 대한 언급도 있다. 그는 “청귤은 가을과 겨울에는 시어서 먹기가 힘들고 2월과 3월에는 시기는 하지만 달기가 알맞고, 5월과 6월에 이르면 꿀처럼 달다”고 했다. 제주성 안에 있던 김정의 유배지 주변에는 과원이 있어 귤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그는 이 나무들을 감상하며 제주에서의 적극적인 유배생활을 달랬을 것이다.

남광로 / 오복1길 / 정든로 / 태성로 | 바람을 담은 길

남광로는 광양지역의 남쪽이라는 의미로 부여된 이름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름 역시 지역을 부르는 명칭을 따라서 남광초등학교라 지었다. **남광로**는 중앙로에서 동쪽으로 이어져 연삼로와 만난다. **남광로**가 지나는 곳 주변으로는 마을의 염원을 반영한 길 이름들이 있다. 남광로 서쪽에서 만나는 **오복1길**은 오복을 누리자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오복은 유교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의 복을 말하는데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 이렇게 다섯가지를 꼽는다. 이것은 오래도록 장수하는 것, 넉넉하게 부자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좋은 덕을 지니며 사는 것, 하늘이 정한 천명에 죽는 것을 뜻한다.

정든로는 산지3교를 지나는 길로 연신로와 연삼로를 연결하고 있다. 이곳은 다정하고 따뜻한 동네라는 의미로 **정든로**라고 했다. 도시개발로 마을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끈끈한 정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바람을 담았을 것이다. **남광로** 동쪽의 동광초등학교를 지나는 **태성로**는 연삼로와 **남광로**를 연결하는 길이다. 태성은 크게 성공하라는 의미이다. 마을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이다.